

발 간 사

현대산업사회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통하여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현재의 풍요로운 경제적인 기반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과학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누리는 많은 이익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논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곳에서 필요한 기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의 대부분이 또한 환경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환경법은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이외에도, 부차적으로 원자력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과 같은 일정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의 장려를 그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법에는 핵 및 방사능안전법, 임덧시온방지법, 감독을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법, 각종 위험물질에 대한 규제법, 폐기물법, 건축질서법, 생명공학 관련법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법의 연구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자연과학적·기술적 연구와 이들의 실제적인 기술실행으로서의 전환은 인간 삶의 기본토대를 파괴하지 않는 한 단념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의 위험성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 조화점을 적절히 발견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학회지인 '환경법연구'가 그 동안 1년에 2회에 걸쳐서 발간되어 오다가, 올해에는 4회에 걸쳐서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원들의 환경법에 대한 연구의 열의가 넘쳐서 그 열의를 우리 학회가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또한 경제적으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회지 발간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회원들은 환경법에 대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더욱 알찬 학회지가 되도록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법연구 제26권 1호가 되는 이번호에도 여러 학회원들이 주옥과 같은 옥고를 제출하여 주었으며, 특히 중국 북경대학 법학과 교수이신 金瑞林 교수를 비롯하여 3분의 중국 교수님들이 옥고를 주셔서 환경법연구가 국제적인 학술지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법연구 제26권 1호의 발간을 위하여 귀중한 옥고를 제출하여 주신 학회원들과 발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04. 4. 1.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석종현